

축사

뜻깊은 성과를 만들어낸 2020년

정재훈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장



친애하는 원자력계 종사자 여러분!
 오늘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입니다.
 원자력 산업의 안전과 진흥을 되새기기 위해 2009
 년 UAE 원전 수출을 기념해 만들어진 법정기념일
 입니다.

특히 올해는 제정된 지 열 번째 되는 뜻깊은 해입
 니다. 국가 에너지 역군으로서 어려운 일을 묵묵히
 해온 원자력계 종사자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말
 씬을 드립니다.

여러분, 올 해를 뒤돌아보면 코로나19 팬더믹이
 라는 예기치 못한 위기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원자력계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해이기도 합니

다.
 우리가 수출한 UAE 바라카 1호기는 지난 8월 최
 초 임계에 도달한 이후 단계적으로 출력을 높여 이
 달 중순 100% 출력에 도달했습니다. 성능보증 시
 험까지 무사히 통과하면 그토록 기다리던 상업운
 전이라는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또한 원전 수출을 위해 체코 정부와 현지기업들
 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다졌으며, 루마니아 체르
 나보다 노내핵계측 기자재 공급, 슬로베니아 복수
 기 자성이물질 제거장치를 수주하는 등 원자력산
 업계가 힘을 모아 다양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뜻깊은 성과를 만들어내며 원자

력계의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준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원자력산업계가 원전 운영과 건설을 중심으로 협력해왔다면 이제는 원자력산업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시대는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 공존의 시대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에너지 상황에 부응하면서 우리 원자력계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원전해체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R&D를 적극 추진할 뿐 아니라 해체 관련 기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형화 추세의 세계적인 원전 트렌드에 발맞춰 혁신형 SMR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우주해양과 핵융합 등 미래 원자력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방사선 응용, 의료기기 같은 비발전산업으로의

확대 또한 우리 원자력산업계가 역량과 자원을 기반으로 개척해나가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산업계의 소재, 부품과 장비 국산화도 발 빠르게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원자력계 산학연이 힘을 모아 100대 국산화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원자력산업계는 앞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룰 저력이 있고, 또 해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하여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에너지를 만들어 갑시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시다.

우리 원자력산업계가 코로나19 안전지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철저한 방역조치와 거리두기에 세심하게 신경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자력계 여러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자력의 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새해에는 우리 원자력계의 더 큰 기쁨과 성취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KIIF**